■ 60대 출소자 구두수선공 최홍주씨의 인생 새 출발

"어두운 과거 닦고 새 희망 光내요"

총기사고·우발 살인으로 40년 수감

교회 등 도움 고향 순천서 참회의 삶

2일 오전 11시30분 순천시 연향동 순천세무서 앞 구두·가방수선가게 '편안한 구두'. 흙 먼지로 뒤덮인 검은색 구두를 닦는 백발 노인의 손동작이 힘차다. 구두약을 바른 흰색 천으로 겉가죽을 30회 이상 닦아내자 서서히 광(光)이 난다. 구두를 버너 불꽃에 갖다댄 뒤 다시 한 번 닦자 마치 새 구두처럼 빛났다.

작업장인 승합차의 4.9m² 남짓한 공간은 구두수선공의 열기로 가득하다. 풍경은 여느 수선소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쪼그려 앉아 수선에 구슬땀을 흘리는 '구두닦이'의 사연을 알게 되면 이곳에서 수선하는 구두는 '희망의 신발'이 된다.

손가락에 흰색 구두닦이 천을 감은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 수선공은 이른바 '전과자'.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범죄인 살인 전과자다. 교도소 수감 이력도 짧지 않다. "실명과 얼굴이 공개돼도 괜찮나요?"라고 묻자 최홍주(63)씨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최씨는 "주변의 시선이 조금 부담되지만, 새 출발한 만큼 선입견 갖지 말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최씨의 인생은 군입대를 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입대 후 2년여가 지난 1970년 5월 월남전 참전을 앞두고 사격훈련 중 총기사고를 냈다.

살인죄로 18여년 간 복역한 뒤 출소한 최씨는 결혼과 함께 새 출발을 다짐했다. 하지만 그 것도 잠시, 부인의 계속된 외도와 잦은 싸움에 지쳐가던 최씨는 부부싸움을 말리던 부인의 친척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1년6개월 만에 또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

그렇게 19년 11개월이 흘렀다. 검은 머리는 '파뿌리'가 됐고, 탱탱한 피부는 잔주름이 가득한 낯으로 변했다. 출소 뒤 찾아간 고향 순천은 여느 도시처럼 급변해 있었다.

최씨는 "내 인생은 이렇게 비틀거리다 끝나버리는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63년의 세월 중 40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는데, 사회 적응이 제대로 될 리 있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순(耳順)을 넘어 찾아온 갱생의 기회를 또 다시 접고 싶진 않았다. 광주교도소와 순천풍성한교회가 그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이들의 도움으로 500만원을 들여 구두와 가방 수선가게를 열었다. '전과자가 하는 가게라 손님들이 외면하면 어쩌나?'하는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최악의 불경기에도 하루 평균 4~5만원은 손에 쥘 수 있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냉소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것에 비하면 제법 돈벌이가 되는 셈이다.

더욱이 자신이 수선한 구두가 고객들에게 기쁨을 주고, 갱생의 발걸음이 아픔을 간직한 수많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도 느낀다. 아직은 이르지만 이제야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최씨는 "출소 후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는 심정으로 변함없이 고객들의 구두를 닦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김동호기자 dhkim@

2일 순천시 연향동 순천세무소 앞길에 차려놓은 '편안한 구두' 수선가게에서 최홍주(63)씨가 손님의 가방을 수선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교도소 '취업 프로그램' 호응

출소자 지난해 40명 올 30명 취직

광주교도소의 출소자들에 대한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직업심리 검사 등을 통한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취업시 신원보증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서울보증보험(주)에 최대 5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인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광주교도소는 지난해 출소자 40여명에 대해 취업 및 창업활동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0여명에 대한 취업·창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죄인들의 수용시설로만 인식되던 교도소가 새로운 취업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교도소 김선태 소장은 "출소자들이 직업을 가져야 범죄가 예방되고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교도소 내 취업지원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정진호 침몰 연결핀 이탈 때문

목포해경 조사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는 '바지선' 석진호와 '압항선' 정진호를 맞물리게 하는 철제 연결핀이 높은 파도에 흔들리다 빠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목포해양경찰은 2일 오전 11시께 목포항 대불부두로 예인된 석진호(포항선적·3천445t)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참관한 가운데 사고 당시 생존자의 진술 일치 및 석진호와 정진호의 결합부위 파손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정진호(포항선적·341t급)가 석진호와 연결된 철제핀 3개 중 왼쪽 연결핀(지름 40㎝·길이 34㎝)이 높은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빠졌으며, 이 과정에서 두 배가 서로 강하게 부딪치는 바람에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날 조사에서는 침몰한 정진호와 함께 표류하다 구조된 석진호가 대불부두에 도착하자 실종된 선원 5명의 가족들이 또 한 번 오열했다.

이날 실종자 가족들은 석진호의 선체에 흰색 페인트로 써진 'SOS', '조난, 119 요청', 'HELP' 등의 글씨를 통해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확인한 뒤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실종된 유진군(54) 선장의 딸 유모(25)씨는 "정진호가 침몰한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만큼 수색반경을 더 넓혀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26일 가거도 인근에서 실종된 정진호와 선원 5명을 찾기 위해 나흘째 수색을 펴고 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야생동물 밀렵 극성

광주·전남 107명 적발…보호단체 회원도 '총질'

오랜 불황 등의 여파로 올 겨울 광주·전남지역의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1년 전보다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지검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함께 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밀렵사범 107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0명)보다 167%(67명)나 급증한 것으로, 2년 전(21명)에 비해선 무려 410%(86명)나 늘었다. 적발 건수도 올해 103건으로, 지난해(34건)보다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들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 7마리〈사진〉를 포함해 멧비둘기 102마리, 꿩 8마리, 너구리 4마리, 고라니 2마리 등 야생동물을 마구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야생동물 보호단체에 가입한 회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전남의 밀렵 사범 급증은 올해 당국과 관련 단체들의 단속이 대폭 강화된 데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 상당수 밀렵꾼들이 무차별적으로 밀렵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150만~200만원을 벌 수 있으며, ▲고라니(25만~50만원) ▲너구리(15만~20만원) ▲꿩(1만5천원~2만원) 등이 거래되고 있다.

김성남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장은 "큰기러기 등 일부 야생동물의 경우 수백만원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불법 수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목카드' 사기 도박

전남경찰, 5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속칭 '목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조모(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52)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월 4일부터 최근까지 나주시 남평읍 모 모텔 등에서 카드 뒷면에 숫자나 무늬 등을 표시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해 도박판을 벌여 총 13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우참

〈7742〉 김종두

부부싸움 아내 흉기 살해

목포경찰은 2일 부부싸움 끝에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김모(33·무직)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밤 11시15분께 목포시 한 아파트에서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K(3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주점서 말다툼 서로 "김태촌과 친분"

쌍나팔

○…광주의 한 포장마차 주인과 손님이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과 잘 아는 사이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다가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2일 상대방을 시비 끝에 협박한 주인 황모(58)씨와 손님인 모 암자 스님 이모(49)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황씨의 포장마차에서 음식 맛을 놓고 말다툼을 하다 서로 협박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 "김태촌과 아는 사이"라며 거짓말을 했는데, 담당 경찰은 "처음부터 조금씩 양보했다면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쓴소리. /이종행 기자 golee@